

최근 환경보건이슈들; 탄소중립/
중대재해/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 기업의 경영 측면

박동욱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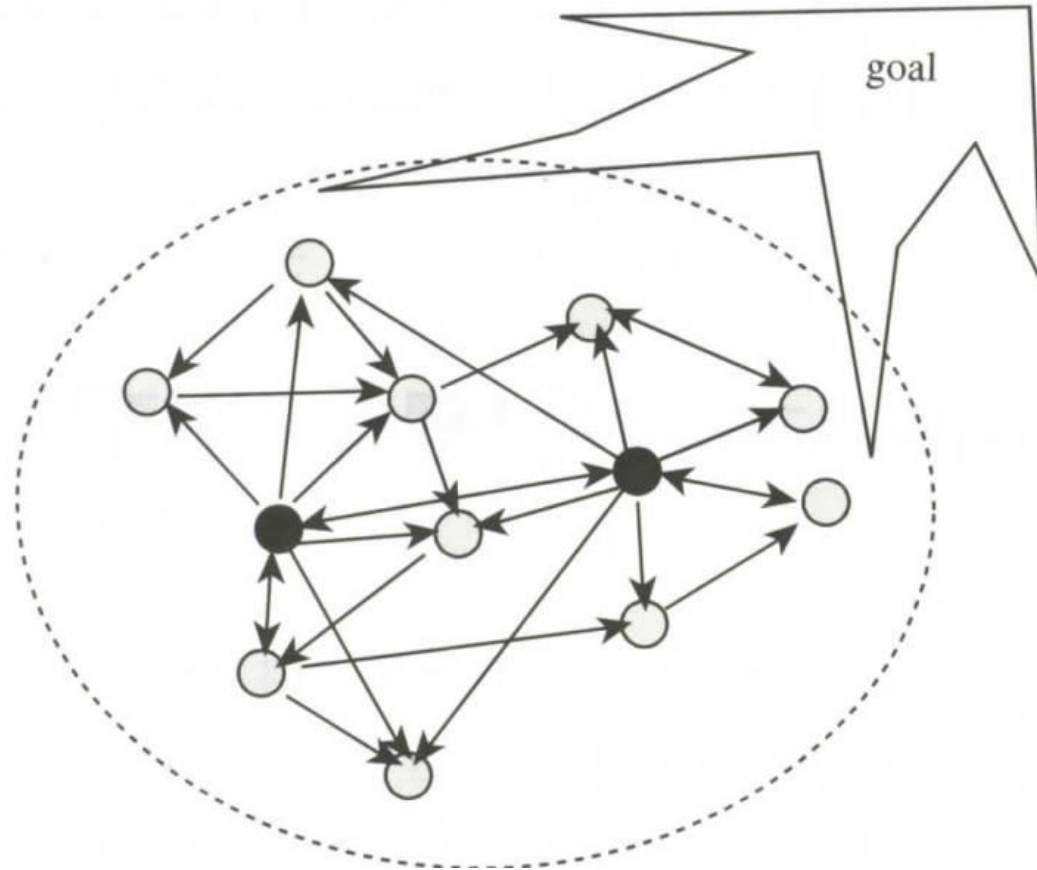
- 사전 이해할 것 <prior knowledge>
- 경영 범위/요소 시대적 흐름
- ISO 경영표준 <standard> 흐름
- ESR
- 최근 국내외 경영 관련 쟁점
 - 기후위기 <탄소중립>
 - 중대재해

사전 이해할 것 <prior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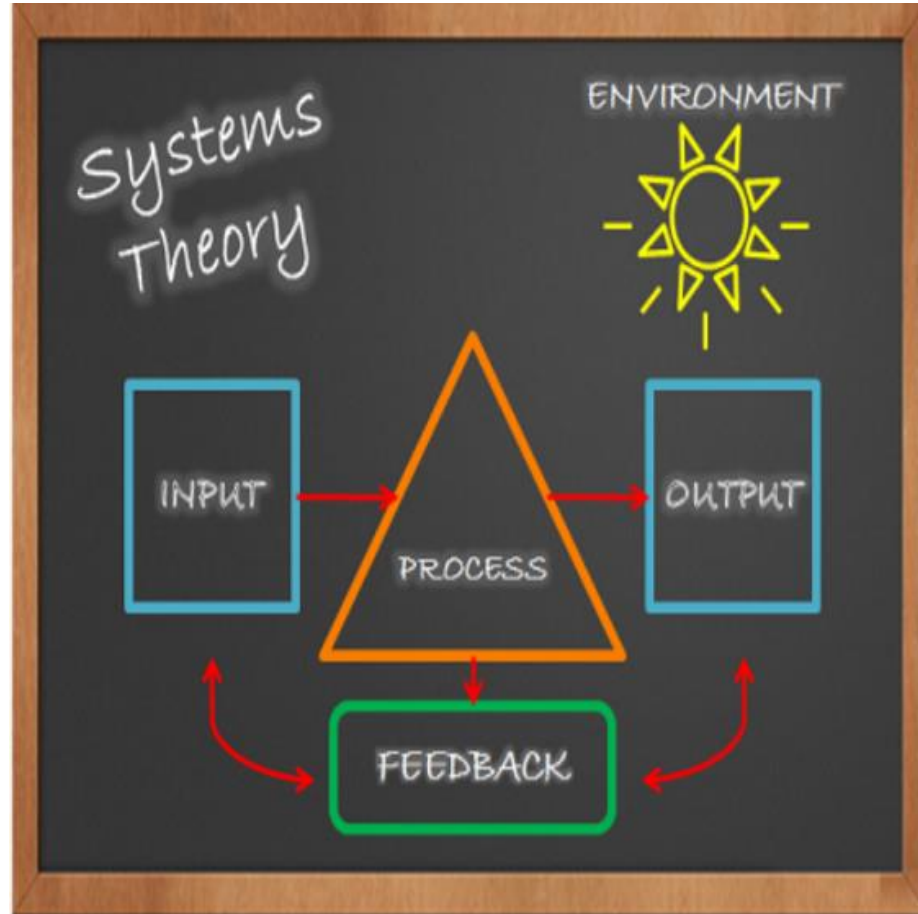
용어

- System
- ISO
- QCMS
- EMS
- OSHMS
- CSR
- ESG
- 신자유주의

System 5개 요소 < 회색 점: 구성원, 검은 점: 지도자, 화살표: 상호작용, 점선: 시스템 경계, 목표 >



System theory(Adam Heil)



- + Society
- + Ecosystem
- + International

경영측면 시스템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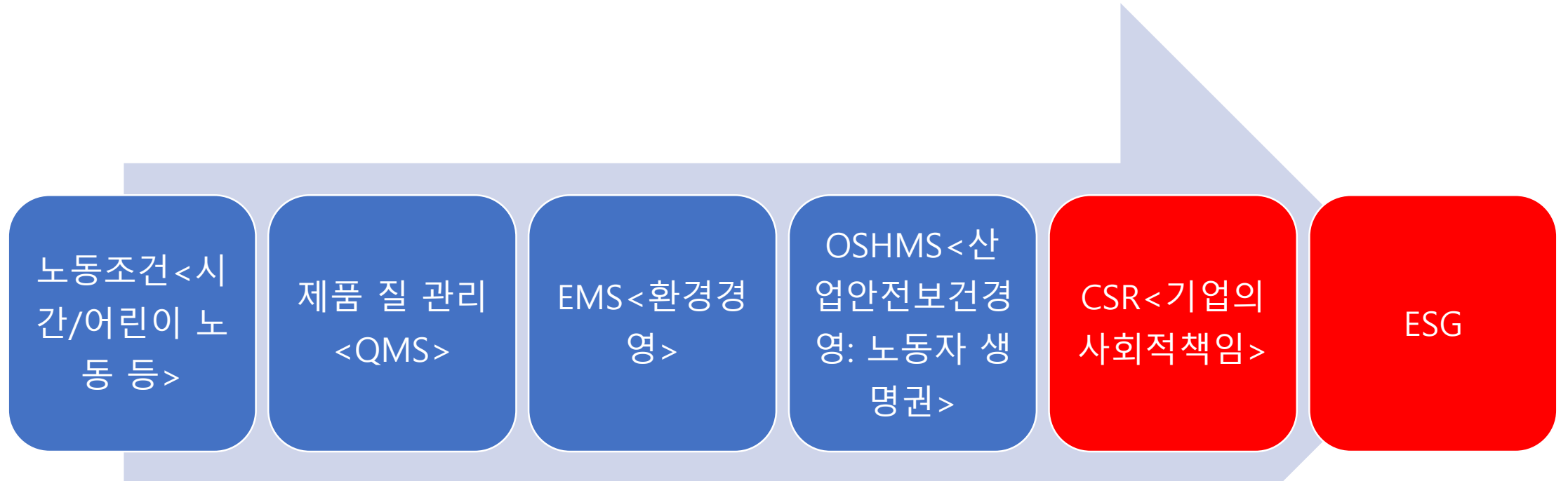
- 기업 <경제활동> vs 노동자 복지/생명권 등
- 기업 vs 노동자
- 기업 vs 주주
- 기업 vs 국가
- 기업 vs <지역>사회
- 기업 vs 환경
- 기업 vs 시민/소비자
- 기업 vs 생태계 <ecosystem>

경영 <management>
범위/요소 흐름

경영 <management/business>

- 생산품질(quality)
 - 비용과 이득/잉여에 잡히는 핵심 요소 <core parts>
- 품질 외 요소
 - 환경/생태계
 - 노동자 복지/안전/보건
 - 소비자/consumer
 - 지역사회/사회적 책임

경영시스템 범위/요소의 확장



산업혁명 -19
세기 무렵까
지:국가마다
차이

국제표준기구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권고기준/무역장벽 등

- 1947년 2월 설립: 국제 기술/산업/유통 기준 제정하고 발간
- 경영시스템 표준 <management system standards> 변화
 - ISO 9000 : 품질 경영 <quality control management systems, QCMS>
 - ISO 14000 :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EMS>
 - ISO 45000 : 안전보건경영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OSHMS>
 - ISO 26000: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O 14000

- ISO 14001 encourages a company to continually improve its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 reduction in actual and possibl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 → 환경/생태계 위해/risk 최소화
 - Plan: Establish objectives and processes required
 - Do: Implement the processes
 - Check: Measure and monitor the processes and report results
 - Act: Take action to improve performance of EMS based on results

ISO 45001

- 2013년 10월 제안/2018년 3월 시행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
 - 산업안전보건
 - 노동자 안전/건강 등과 관련 기업 경영의 요소로 통합/시스템
 - 중대해처벌법 등 포함

국내사례 > 안전보건공단 KOSHA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이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추이>



ISO 26000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Encouraging business and other organizations to practice social responsibility to improve their impacts on their workers, their natural environments and their communities <기업/조직의 노동자, 자연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함>

ISO 26000: 사회적 책임 7개 핵심 요소)

- Organizational governance
- Human rights
- Labor practices
- Environment
- Fair operating practices
- Consumer issues
-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Social responsibility: **7** core subject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Criteria

≡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정책
 - 기업/조직의 문화와 행동을 이끌고 대중에게 기업의 가치(values)/목표(goals)/위험(risks)을 알림

- Related but not the same.
- While CSR aims to make a business accountable, ESG criteria make such business' efforts measurable."
- CSR is the ideal and gives context about sustainability agendas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culture. ESG is the action and measurable outcome. To simplify, CSR can be thought of as the qualitative side and ESG as the quantitative side

WHAT'S CONSIDERED WITH ESG?

Examples include:

Environmental

- Climate change
- Waste management
- Energy efficiency
- Water scarcity

Governance

- Board structure
- Financial reporting
- Business ethics
- Executive remuneration

Social

- Human rights
- Health and safety
- Consumer privacy
- Gender equality



출처: <https://www.sharesmagazine.co.uk/article/the-best-esg-investments>

ESG 범위: 무한 ?

- Environmental criteria → 기업이 자연 보호에 관리자/감시자로서 역할 수행
- Social criteria → 노동자/공급자/구매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이들과 기업의 운영에 대한 소통 방법
- Governance → 기업의 리더십, 실행비용, 감사, 내부관리 그리고 주주 평가

Environment/주요 환경 요소

- Companies that put out carbon or sustainability reports <탄소 배출/환경 지속 지원>
- Limits harmful pollutants and chemicals <위해 오염물질/화학 물질 배출 제한>
- Seeks to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 가스 낮춤>
- Uses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 에너지 사용>

Social/주요 사회 요소

- Companies that operate an ethical supply chain <윤리적 공급 체인/체계>
- Supports LGBTQ rights and encourages diversity <LGBT 지원/다양성/차별 금지 등>
- Policies to protect against sexual misconduct <성관련 부당 경영 등>
- 적정 임금 지불 등

Governance

- Companies that embrace diversity on their board
- Embraces corporate transparency
- Employs a CEO independent of the board chair
- How well do executive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attend to the interests of the company's various stakeholders – employees, suppliers, shareholders, and customers? Does the company give back to the community where it is located

ESG 활용

- 투자판단 요소 → Increasingly popular way for investors to evaluate companies in which they might want to invest.
- 위험 요소 기업 피함 → 드러남 ESG criteria can also help investors avoid companies that might pose a greater financial risk due to their environmental or other practice
 - 원진레이온
 - ** 텍스트 스위치
 - 중대재해 기업
 - Jonshon and Joshon

기후위기; 탄소 중립
<carbon neutrality>

탄소 중립 <carbon neutrality> 개념

-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전(20세기 전)에 비해 1.5도로 유지 목표 →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한파 등으로 인류 안보 위협/다음 세대 생존 치명적이라는 과학적 근거
- 국가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시기는 2030-2060년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라 많음>
- 탄소 배출과 지구의 탄소 흡수를 고려하여 순수 탄소 배출 "zero"로 만들어야 함 → 국가별 시기 권고

2030 지구의 미래 글래스고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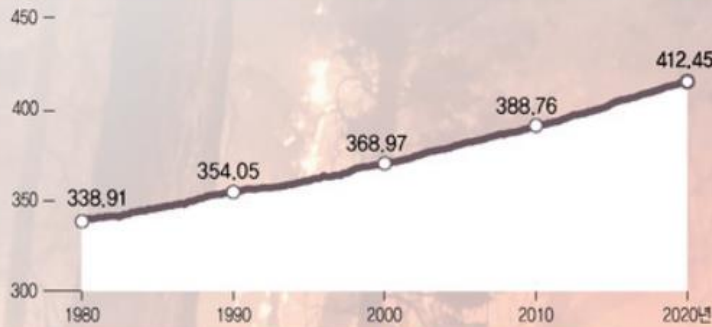


기후위기와 세계의 대응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일 밤 9시(한국시간)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본격 시작된다. 의장국이 정한 주제는 '행동과 연대 중요한 10년'이다. 당장 2030년대 지구를 지금의 파괴적 추세로부터 건져내야 그나마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다른 말, 세계가 2015년 파리협정(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노력) 이후에도 반목과 책임 회피를 거듭한 데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이해 없이 '행동'도 '연대'도 어렵다. <한겨레>는 기후변화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유용한 과학적 사실들로 그래픽 페이지를 연다. 새해엔 '기후변화' 특화 누리집으로 확대한다. 지구가 아파온 경로, 인류가 아를 수밖에 없는 미래상 또는 대응을 세계 전문기관의 자료로 한목에 실필 수 있다. 이들 과제가 향후 2주 동안 정부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로비력을 갖춘 기업과 함께, 분노밖에 없는 시민들도 글래스고에 집결할 전망이다. 그 현장으로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들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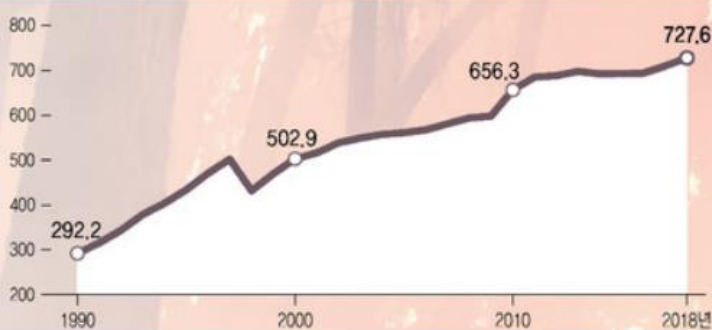
1 전지구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

(단위: ppm)



2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 CO₂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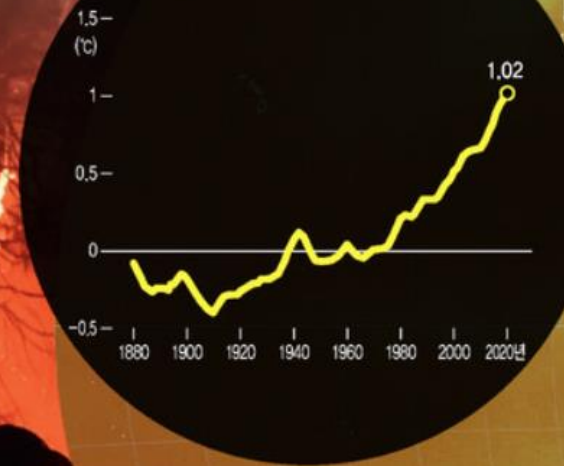


3 세계 최종에너지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이

(단위: EJ(석유화석))

4 1880년 이후 기온 변화 추이

※1951~1980년 전지구 평균기온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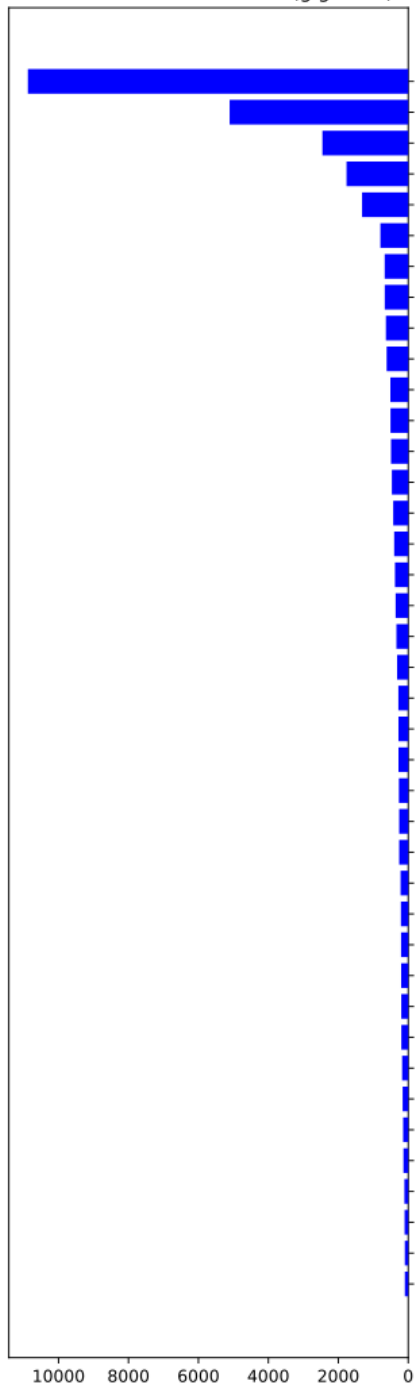


자료: 한겨레 <2030 지구 미래 기후위기와 세계의 대응, 글래스고를 가다, 21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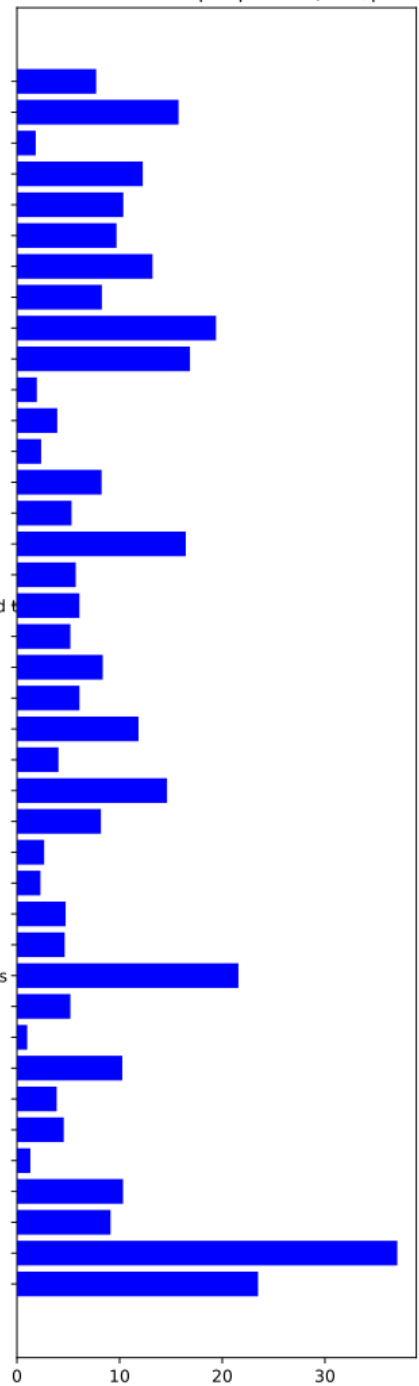
탄소 중립 <carbon neutrality>

- 우리나라 2030년까지 40 % 2050년까지 제로 상태
- 고 탄소 배출 산업 → 저 탄소 배출산업 전환 시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발생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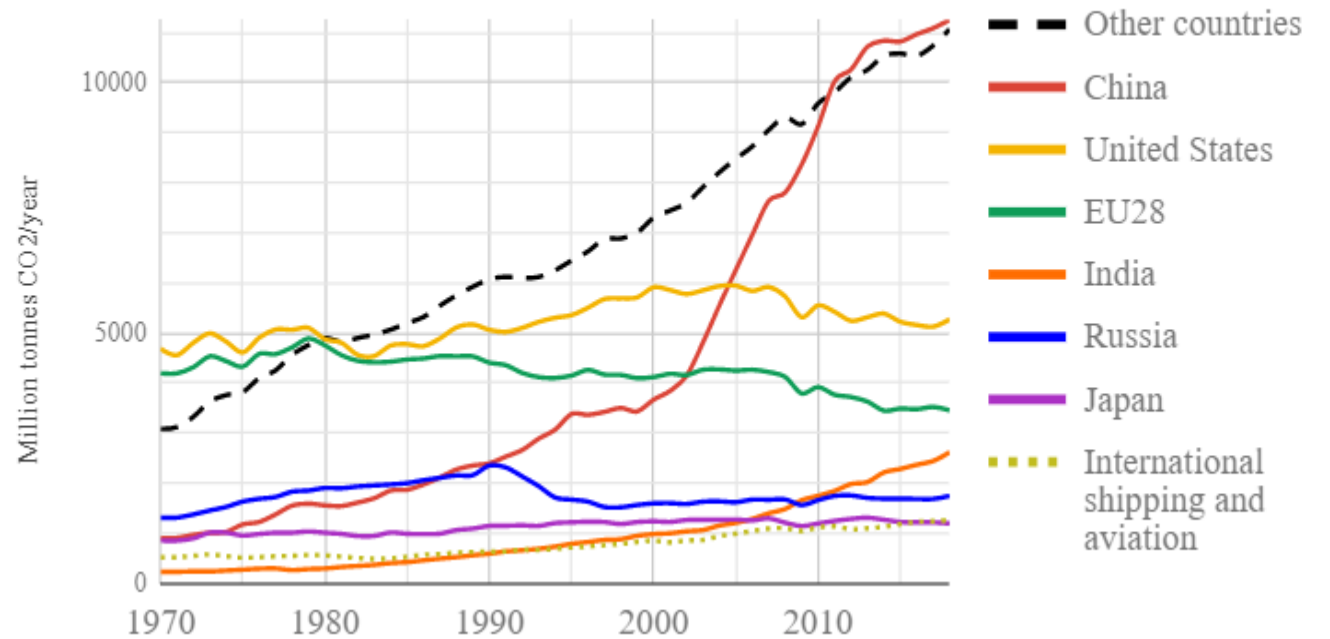
Total CO2 emissions 2017 (gigatons)



2017 CO2 Emissions per person (tons/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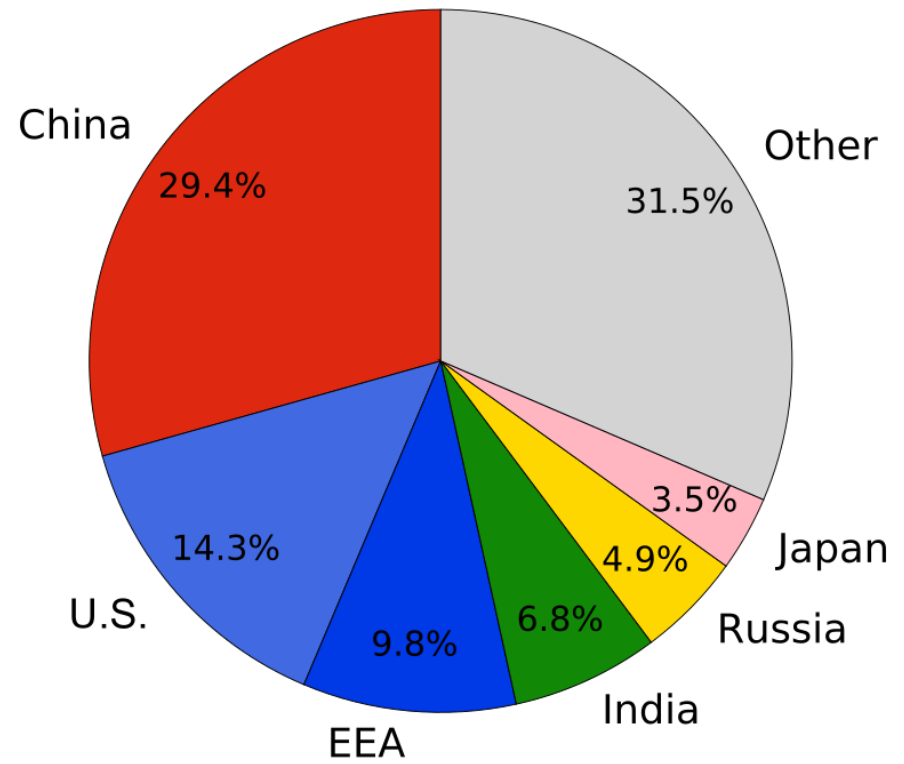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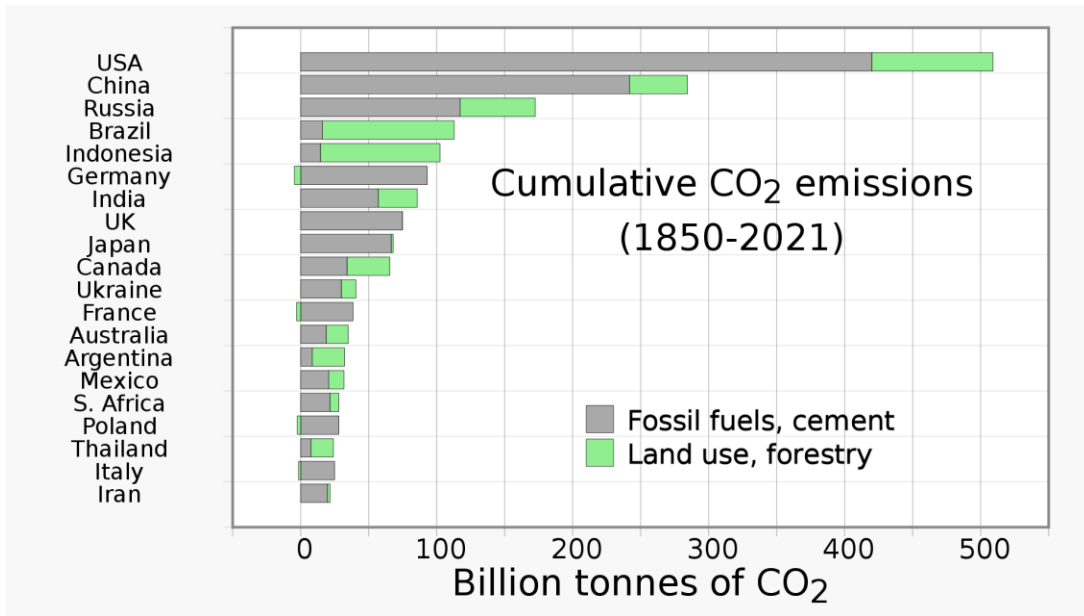


World fossil carbon dioxide emission 1970-2018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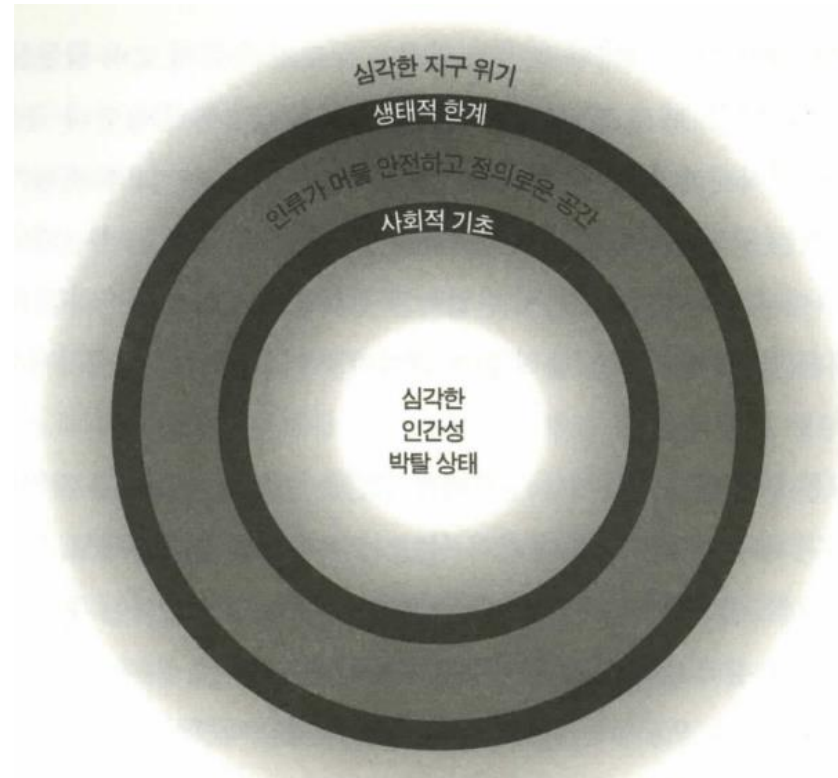
: https://en.wikipedia.org/wiki/2015_United_Nations_Climate_Change_Conference



UN 활동/국제적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비판

- 최근 10월 글래스고 COP26 <제26차 UN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폐막
 - 석탄산업: 단계적 퇴출 → 단계적 감축
 - 개발대상국 기후 위기 기술 기금 1년 뒤로 미룸
- 스웨덴 튜베리 : no more blah blah → 블라 블라만 함

도넛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서 저/홍기빈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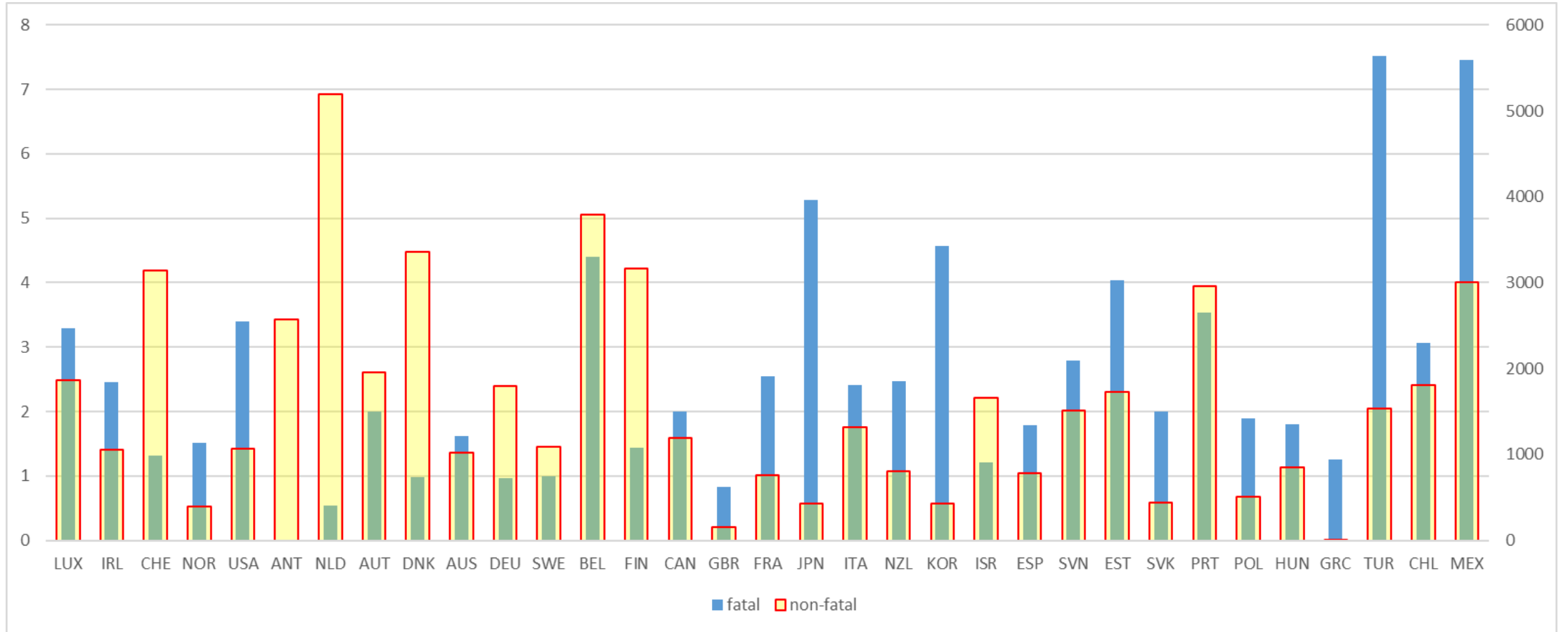
도넛의 본질: 사회적 기초란 모든 이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소 수준의 안녕이며,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이 사이 공간이 만인이 안전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곳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

- 매년 800-900여명 노동자 사망사고 → OECD 1위
- 11년 가슴기 살균제 참사
- 14년 4월 세월호 사건
- 14년 5월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김용균
-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 21년 제정

OECD 산업재해 비교 <BLUE: 중대재해>



목적

-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이나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경영책임자 개념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

- 중대재해 → 같은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or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or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or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 내용

- 기업 대표나 책임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 사망사고가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원 이하의 벌금

적용

- 제외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 유예 > 50명 미만인 사업장 3년 유예
- 22년 1월 시행
- 한계점
 - 5명 이하로 쪼개기
 - 상시 근로자 아니면서 대규모 고용: 플랫폼 재해 예방할 수 있는지
 - 중대재해 유의미한 감소 가능한지

강의 결론

- 성장 <growth>
- 발전 <development>
- 유한(un-limit)/순환 → one health
-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인간/사회/국가/세대/생태계/지구